

연구원 개원 38주년 기념사

안녕하십니까? 만물이 생동하는 봄과 함께 우리 연구원이 개원 서른여덟 돌을 맞았습니다. 충만한 에너지를 마음껏 분출하는 대자연과 더불어 연구원 가족들도 모두 힘차게 도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주에 정착한 이후 우려했던 것에 비해 환경변화에 빠르게 적응해나가고, 활기차게 생활하는 모습에서 희망의 싹을 보게 됩니다.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제일 크게 걱정했던 것 가운데 하나인 인력의 유출, 그리고 인재 영입의 어려움은 예상외로 잘 풀려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 새 식구가 된 많은 인재들을 동량으로 길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구원 이전으로 부산한 분위기 속에서도 2015년 기관평가와 연구결과는 좋은 결실이 기대됩니다. 이러한 점이 우리 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저력과 귀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원은 늘 국책연구원으로서의 책무를 생각해야 합니다. 국가와 사회는 물론 국제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깊이 고민해야 하는 것이 공공기관 종사자의 의무입니다. 나주로 청사를 이전하고 제2의 개원을 맞는 시점에서 국책연구원의 정체성과 지향성을 확고히 할 때입니다. 정체성이 정립되지 않으면 가야할 목표와 방향을 정할 수 없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의 정책선도 기능은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소득 향상과 의식수준의 변화로 양질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 볼 부분입니다. 국가 재정규모의 축소와 이에 따른 재량지출의 감소가 연구·개발 관련 예산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재정규모의 압박 속에서 의무지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면 연구원 관련 예산도 많은 제약이 따를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한 연구원의 지속가능한 성장 가능성에 대해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농업·농촌정책도 우리 경제를 둘러싼 세계경제에 대한 이해가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세계경제의 침체와 그 영향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글로벌 경제는 불확실성을 지나 위기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위기관리를

위해 보다 널리, 그리고 멀리 보는 안목이 필요한 때입니다. 농업이 기간산업으로서의 역할과 공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다 많은 연구역량을 모아갈 시기입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 시기에 국내 부존자원 의존도가 높은 1차산업은 경제·사회적 버팀목으로써의 역할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글로벌 저성장과 디플레이션 시대에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확보 측면에서 농업의 역할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합니다. 타 부문에서 발생하는 실업 인구를 받아들여 경제·사회적으로 안전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실업인구 재고용 및 일자리 창출 등과 관련된 연구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과제는 젊은 층 실업문제 해결입니다. 젊은 층 실업문제는 저출산, 잠재성장을 하락, 고령사회 문제 등 경제·사회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지속가능한 성장은 물론 국가와 사회의 지속성도 보장될 수 없습니다. 연구원은 임금피크제를 실시함으로써 고령화와 일자리 창출문제 해결에 동참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만, 연구를 통해 이러한 사회적 문제에 해법을 제시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사회적 요구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름지기 연구 성과는 집중력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직의 경우 출장으로 인한 시간 소모가 걱정되는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나주 이전 이후 3월 중순까지의 자료를 분석해보면, 근무일수 대비 출장일수 비율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43%나 증가하였습니다. 직급이 높을수록 사무실 근무 일수는 적어지고 있으며, 일부 직원들은 휴가기간을 포함하면 사무실에 머무는 시간이 전체 근무일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연구원의 경쟁력 향상과 국책연구기관의 임무 수행에 차질을 초래하지 않도록 집중력을 유지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스마트워크센터의 근무 환경이 나주 사무실과 동일하게 느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러한 시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출장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시간의 제약을 보충해나갈 수 있도록 다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갑시다. 또한 이 곳 나주가 출장지와 같은 느낌이 나지 않도록 마음을 다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원은 나주에 힘찬 첫발을 디디고,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개원 38주년을 맞아 첫걸음이 큰 족적으로 남을 수 있도록 모두가 화합하고 힘을 모아 나갑시다.

감사합니다.